

◆ 독일 기계산업의 최근 동향

2001년 중 사상 최대의 실적 기록

독일 기계산업은 2001년에 사상 최대의 판매 및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331억 유로, 수출액은 8.8% 증가한 862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도 2000년의 61.4%에서 64.8%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규모의 수주잔량을 확보했던 데 기인한다.

2000년의 세계경기 호조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독일 기계산업의 공장가동률은 2000년 12월의 91.5%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작년 12월에는 85.7%로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압연, 인쇄, 제지, 공작기계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제재(製材), 건축자재, 창고운반기계 등은 상대적으로 공장가동률이 낮았다. 2001년 말 현재 수주잔량은 신규 수주량의 감소로 인해 2000년 말의 5.6개월분에서 소폭 감

소한 5개월분을 유지하였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는 공장가동률 상승,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비용절감 노력 등에 힘입어 2000년 중 기계생산업체들의 매출액순이익률이 3.6%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경쟁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다. 2001년에는 공장가동률이 다소 하락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있었으나, 기계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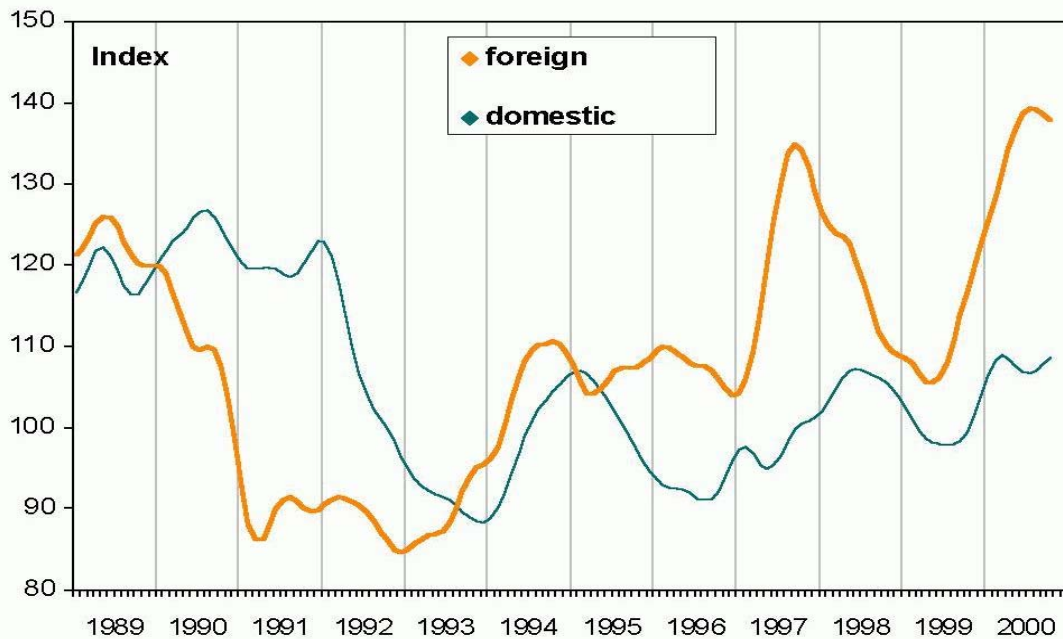
기계산업은 크게 광업기계, 농기계, 절연기계, 인쇄기계, 섬유기계 등으로 나뉘고, 용도에 따라서는 냉각기계, 생산로봇기계, 지게차, 공작기계 등으로 분류되는데, VDMA에 가입된 6,000여 개의 업체들은 대부분 평균 고용인원 150명 내외의 중소기업이며, 업체별 생산품목은 많게는 40여 종에까지 이른다.

〈표〉 독일 기계산업의 매출 및 수출실적

구 분	단 위	2000년	2001년
매 출 액	억 유로	1,289	1,331
수 출 액	억 유로	792	862
주 문 잔 액	개월분	5.6	5.0
고 용 인 원	만 명	89.2	90.2
공 장 가 동 율	%	91.5	85.7

자료: 독일 기계공업협회.

〈그림〉 독일 기계산업의 수주 추이



자료: 독일 기계공업협회.

### 독일 기계산업 최근 현황

독일 기계산업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세계경기에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다. 실례로, 국제유가 변동은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작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광고수요의 감소는 인쇄기계 주문량 감소로 이어진다.

2000년 이후 국내외 기계수요가 점차 감소하여 2001년도 주문량이 전년 대비 7% 감소하였는데, 해외주문량과 국내주문량이 각각 6% 및 8%씩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수요는 세계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였으나, 국내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수출입 시장

세계 기계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이 주축을 이루고 이탈리아, 영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독일 기계산업은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력과 경영혁신으로 세계 기계산업을 주도하여 1983~1999년중 독일은 세계 최대의 기계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미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기계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세계 기계시장에서 독일은 주로 미국, 일본 및 이탈리아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품목이 중복되는 이탈리아와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1년 중 독일 기계수출의 지역별 분포는 서유럽 49.2%, 동유럽 10.9%, 동남아 13%, 중남미 4.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독일 기계수

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2001년의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97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어 제9위 수출시장이 프랑스가 66억 유로, 이탈리아가 49억 유로, 영국이 43억 유로, 스페인이 35억 유로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스페인 등이 독일의 새로운 기계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독일의 對중국 수출액은 2000년의 25억 유소에서 2001년 34억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부분별로는 2001년 중 섬유, 광산, 인쇄기계 수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종이 소비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향후 인쇄 및 펄프기계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VDMA는 2001년 독일의 국내 기계시장 규모를 831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40% 정도는 수입품이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수입규모는 미국이 44.4억 유로로 가장 많고, 스위스 38.3억 유로, 일본 27.2억 유로, 체코 17.2억 유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동향

전 세계 기계생산의 약 12%를 차지하며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기계 수출국이었던 독일은 오늘날도 2000년 기준 10개

이상 기계류 품목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17.6%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냉각, 압연, 인쇄, 포장 및 고무·플라스틱·종이 생산 기계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공작기계 분야는 2001년도 생산실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0억 유로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독일공작기계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2001년 중 신규 수주량이 전년 대비 13%나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생산실적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랜트 분야는 지난해 세계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런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기업들은 플랜트 분야 중 발전, 하수처리, 냉난방, 정유, 제련, 제강설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스발전설비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 2002년 전망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2000년 6월 이후 독일 자본재에 대한 해외수요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해외주문량이 회복되고 있다. VDMA는 금년 하반기 중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데 따른 해외주문량의 증가로 독일 기계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사무소】